



## 原子力發電存廢與否

—스위스등서 國民投票—

스위스는 지난 2월16일부터 18일 사이에 實施한 國民投票로, 原子力發電所建設 中止와 그 存廢 規制與否를 묻은 結果 規制反對案이 勝利함으로써 原子력발전은 繼續推進하게 되었다.

規制贊成이 919,923표, 反對가 965,271표로서 겨우 45,348표의 僅少한 差異로 推進派가 승리하였으나 여기에서 關心을 가져야 할 일은 발전소를 건설하는데에도 國民의 意思를 묻는 發議權尊重 風土이다.

이같은 贊否國民投票는 스위스 뿐 아니라 오스트리아에서도 이미 實施한바 있으며 오스트리아에서는 規制派가 1%의 得票差異로 이긴바 있어, 國民의 발의권존중은 새삼스러운 것이 못된다.

스위스의 이같은 國民투표는 環境保護를 主張하는 原子력발전소의 廢鎖를 國民의 의사에 묻은 것이며 스위스에는 商業原電이 3基에서 10kW를 出力하고 있어 全國發電量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317萬kW를 출력할 8基를 建設中이며 또 4基에 432萬kW를 새로 建設計劃中이다.

한편 國民투표에서 否決된 오

스트리아의 츠벤텐틀푸원자력발전소는 運轉이 停止되고 있다.

## 8월에 UNCSTD會議

—南北間意見差處理에 關心—

오는 8월 20일부터 30일까지의 11日豫定으로 비엔나에서는 開發途上國에의 技術移轉問題를 中心으로한 UN科學技術會議(UNCSTD)가 열린다.

이번 회의의 主要議題는 農業, 食糧, 天然資源, 에너지, 保健, 住居, 環境, 輸送, 通信, 工業化 등 廣範圍하다.

그러나 新國際經濟秩序나 經濟援助 또는 技術移轉問題에 先後進國間의 意見差가 심할뿐 아니라 지난 5월의 UN貿易開發會議에서도 意見差異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미루어 큰 期待는 걸지 못할 것이다.

## 日防衛廳서 新型戰事砲

—西獨 라인미터商談에 呼應—

日本防衛廳은 現存主力戰事인 74式에 代替할 新型戰事를 研究하는 한편 새로운 主砲의 採用을 準備中이다.

이 砲는 滑腔砲라고 하는 것으로서 從來의 旋狀式보다도 加速



되면서 破壞力이 강한 先進國型이다. 美國도 蘇, 英, 西獨에 이어 XM1戰事에 西獨滑腔砲를 채용하기로 했다.

일본이 채용하는 이 滑腔砲는 美國이 選定한 西獨라인미터會社로부터의 商談에 따른 것이며 이에 따라 同技術에 의한 砲를 來年안에 製作하여 來後年인 1981년에 評價試驗을 마치고 그 成果에 의거하여 輸入이나 國產이나를 판가름할 方針이다.

일본방위청은 砲塔이나 動力裝置를 비롯하여 防護力 및 火力 등 3種의 研究·試作에 1千餘萬弗을 年內에 投入하기로 豫算措處가 끝났으며 1988년에는 完全制度化를 끝낼 豫定이다.

이번에 開發하려는 라인미터의 口徑 120mm 滑腔砲는 美新型 XM1 戰事용으로 선정함에 刺戟을 받은 것으로 볼수 있으며 미국의 채용은 英國의 M13A 120mm 腔綫砲에 앞서려는 底意로 解釋되고 있다.